

법무매거진

전 세계 법조계,  
우크라 침공 러시아 규탄



-서울변회, ‘침공행위는 유엔헌장과 국제법 정면 위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 법조계가 러시아를 보이콧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나섰다. 러시아를 비난하고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국내 변호사 단체도 잇따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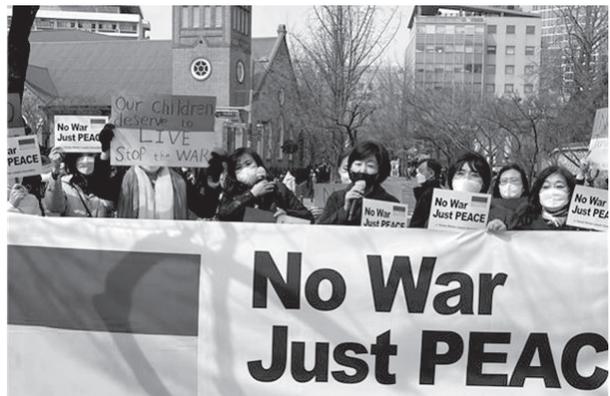
세계변호사협회(IBA)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러시아를 각종 행사에서 배제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수사 착수를 지지했다.

며 “러시아 군대는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 관리나 기관은 IBA 위원회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러시아에서는 IBA 이벤트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검사협회(IAP·회장 황철규 법무연수원 국제형사센터장)도 1일 성명을 내고 러시

1. 세계변호사협회, 각종 국제 행사에 러시아 배제 선언

IBA는 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는 법적 정당성이 없고, 우크라이나에서 자행되는 잔학 행위 유형에는 면책이나 공소시효가 없다.”



아의 이번 침공 행위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국제법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2. 국제검사협회, 우크라 시민에 대한 위협 등 중단 촉구

IAP는 “러시아 연방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수사관, 검사, 판사들에 대해 독립성이 부족하고 부패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우크라이나 검찰과 러시아 연방검찰 모두 IAP 기관회 원으로서 전세계적인 검사 커뮤니티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수사관, 검사, 판사의 업무 수행 독립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IAP는 또 러시아 연방검찰총장에 대해 “러시아 정부에 우크라이나 시민, 검사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위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IAP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IAP 현지 지역사무소를 섰다운 했다. 다만 국제형사공조 강화 등을 위해 “지역사무소를 통한 검사 간 네트워크 구축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판사협회(IAJ)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튿날인 지난달 25일 성명을 내고 “러시아에 군대 철수와 국제법에 따른 분쟁 해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3. 우리나라 법조계도 움직이고 있다

서울지방법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7일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침공 행위는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

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는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직접 당사자로 참여해 ‘즉각적이고 완전한 휴전’을 합의한 2차 민스크협정도 위반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수호 의지를 지지한다.”며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의 여러 법률 문제에 대한 조력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 4. 국제판사협회, “러시아 군대 철수·분쟁해결 나서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같은 날 서울 중구 정동 시립미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 정부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여성변호사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양국 전투원의 인명 피해는 물론 민간인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반인류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도 이날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난민과 민간인 피해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를 바란다.”는 성명을 냈다.

앞서 착한법만드는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지난달 26일 “국제법과 협약을 위반한 러시아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법률신문)